

[보잉] FAA, 737 MAX 7 형식증명 부여 - 생산 확대와 수주잔고 실행의 규제 관문 통과



26.08.04 · AI Engineer 조재운 jaeun.jo@daishin.com

핵심 요약

- FAA, 737 MAX 7 형식증명 부여로 인도 개시 요건 충족
- 생산율 확대·수주잔고 실행에 긍정적이나 마진 개선은 별개
- 좌석결함 감항지시 등 기존 리스크는 그대로 유지

미 연방항공청(FAA)이 737 MAX 7에 대한 형식증명(type certification)을 부여했다. MAX 계열 중 가장 작은 파생형인 MAX 7은 그동안 인증 지연으로 발이 묶여 있던 기종인데, 최근 인증 비행시험을 마친 데 이어 이번에 정식 승인을 받으면서 인도 개시의 마지막 규제 문턱을 넘었다.

이번 인증은 Boeing이 진행 중인 회복 사이클과 결이 같다. 직전 분기 매출은 8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인도량도 전년 대비 두 자릿수 늘었으며, 사상 최대 수주잔고 역시 향후 생산 확대가 실행으로 옮겨질 때 의미를 갖는다. MAX 7 인증은 737 생산율을 월 47대 체제로 끌어올리는 계획의 한 축을 채우는 사건으로, 인도 대수 증가가 곧바로 현금흐름 개선으로 이어졌던 최근 분기 패턴(분기 잉여현금흐름 흑자 전환)이 이어질 여지를 넓혀준다.

다만 이 소식이 수익성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. 상업항공기 부문은 여전히 영업적자 상태이고, 국방·우주 부문도 고정가 개발 프로그램의 반복적 손실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. 직전 분기 주당순이익이 컨센서스를 크게 밑돈 배경도 이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. 인증 하나로 이 흐름이 뒤집히진 않으며, 오히려 인도 증가에도 마진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면 생산 확대의 질적 한계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. 별개로 진행 중인 좌석 결함 관련 감항 지시 대상 기체 문제도 이번 인증과는 무관하게 남아 있는 리스크다.

주가에는 완만한 긍정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 소식이나, 이미 밸류에이션이 할인된 구간에서 방향을 되돌릴 만한 단일 재료로 보기는 어렵다. 앞으로는 MAX 7 실제 인도 개시 시점과 초기 물량, 737-10 인증 진행 상황, 그리고 상업항공기 부문 흑자 전환 시점이 계획대로 지켜지는지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.



재무 요약 (I/B/E/S 컨센서스)

항목	FY Dec-24	FY Dec-25	FY Dec-26 (E)	FY Dec-27 (E)	FY Dec-28 (E)
매출 (Revenue)	66.52	89.46	97.77	112.17	122.68
↘ 증가율	-14.50%	34.50%	9.28%	14.73%	9.37%
매출총이익	-1.99	4.29	12.27	17.32	21.00
↘ 마진	-2.99%	4.79%	12.55%	15.44%	17.12%
EBITDA	-8.87	6.23	4.41	8.44	12.49
↘ 마진	-13.34%	6.97%	4.51%	7.52%	10.18%
영업이익 (EBIT)	-10.71	4.28	2.23	6.13	9.92
↘ 마진	-16.10%	4.79%	2.29%	5.47%	8.08%
순이익	-13.18	-4.99	-0.43	3.18	6.82
↘ 마진	-19.82%	-5.57%	-0.44%	2.83%	5.56%
EPS	-20.38	-6.54	-0.84	3.67	7.89
↘ 증가율	250.77%	-67.91%	-87.21%	-539.11%	114.86%
잉여현금흐름 (FCF)	-14.31	-1.88	2.36	6.23	9.65
P/E	—	87.6x	—	58.8x	27.4x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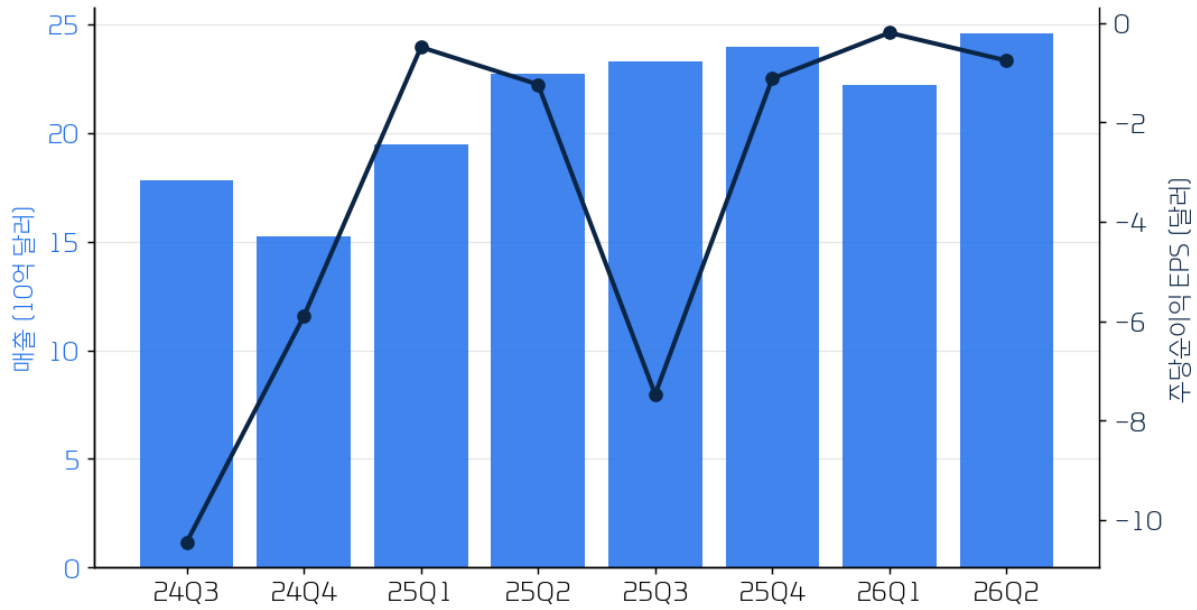
주: 증가율은 YoY, 단위는 십억 USD

참고 차트

BA 주가·12개월 선행 EPS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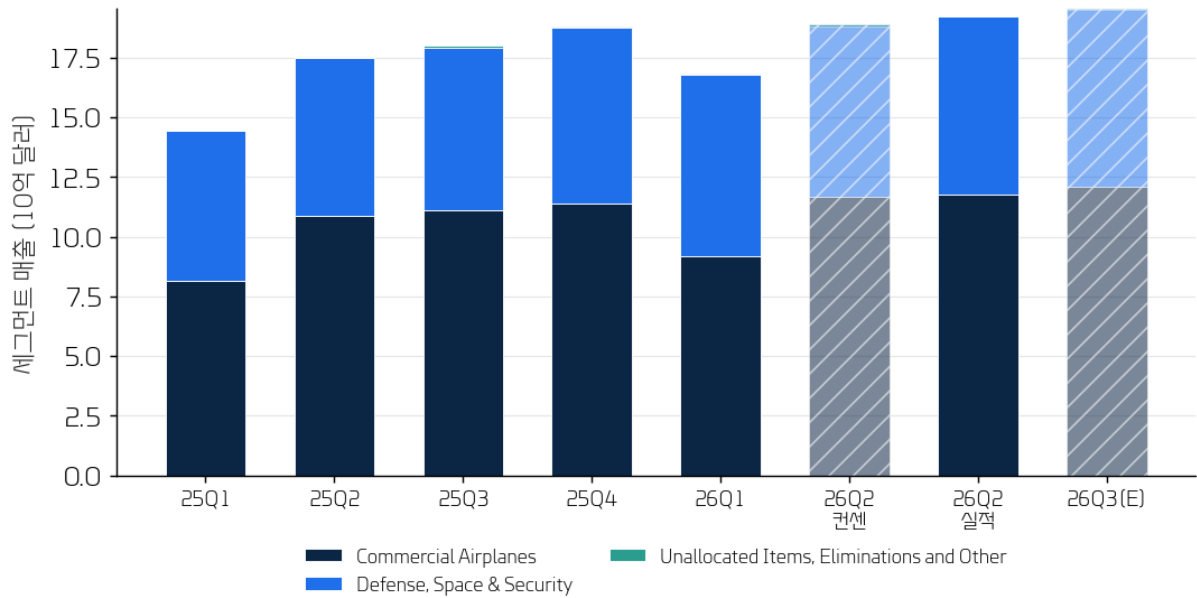


BA 분기 매출·주당순이익(EPS) 과거실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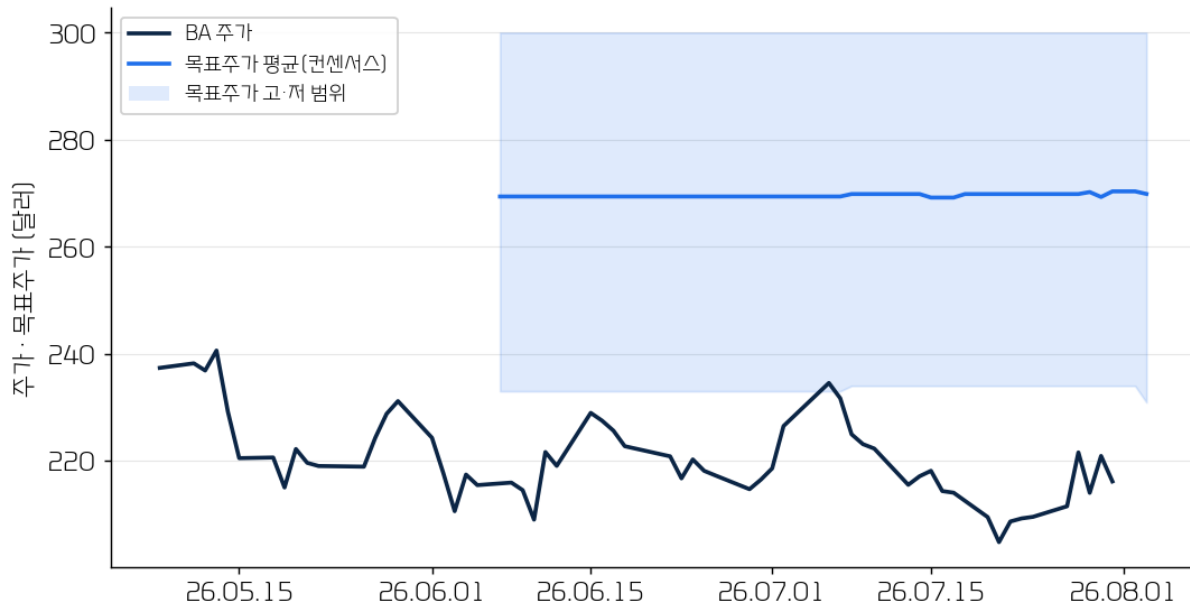
자료: 각사, LSEG, Factset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BA 세그먼트 매출 구성(사업부/지역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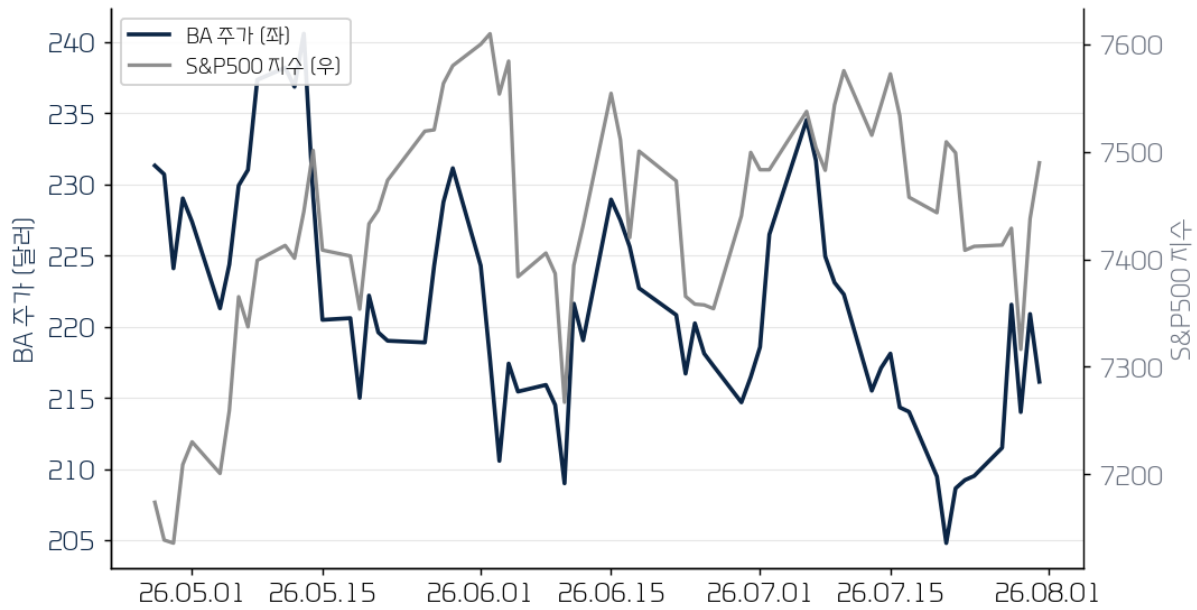
자료: 각사, LSEG, Factset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BA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추이



자료: 각사, LSEG, Factset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BA 주가 vs S&P500 (최근 90 일)



자료: 각사, LSEG, Factset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Compliance Notice

금융투자업규정 4-20 조 1 항 5 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,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 (담당자:조재운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자료는 인공지능(AI)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되었으며,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